

<글로벌이슈브리프>는 주요 이슈에 대한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프

NO. 12

GLOBAL ISSUE
BRIEF 2021

빈부 격차

THINK TANK VIEW

맥킨지앤드컴퍼니 | McKinsey & Company 2021. 2

Achieving an Inclusive US Economic Recovery
팬데믹 회복은 경제적 포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0. 11

How to Fix Economic Inequality?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빈부 격차 해소 정책

채텀하우스 | Chatham House 2021. 12.

Inequality is Polarizing the World
세계를 분열시키는 빈부 격차

브루킹스연구소 | Brookings 2020. 11.

How to Address Inequality Ex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코로나19로 드러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1. 맥킨지앤드컴퍼니 | Mckinsey & Company

팬데믹 회복은 경제적 포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Andre Dua

2021. 2.

 [Achieving an Inclusive US Economic Recovery](#)

66

코로나19로 취약계층에 피해 가중되어 빈부 격차 심화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면 피해 최소화 가능

99

| 현황 |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 급급해 불평등 가려져
- GDP는 팬데믹 이전의 75%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실업률은 60% 수준 회복
- 유색인종, 저소득층, 여성 등 소외 계층의 실업률이 높음
- 기존의 포괄적인 전략으로는 미미한 성과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 높아



| 해결 방안 |

- 1 정부 차원에서 학위가 아닌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 확대 방안 마련
 - 교육기관과 기업을 통해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을 실업자들에게 제공
 - 능력 기반의 채용과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주와 직원의 니즈 모두 만족
- 2 성별, 인종,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통해 불평등 해소 노력 강화
 - 교육기관과 기업은 근로자에 대학 교육 제공
 -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
 - 기업은 교육기관과 협력해 육아, 원격 교육 등을 지원해야

③ 국가, 민간, 비영리 단체는 단기성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해 회복 촉진

-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 초기집중투자(front-loading) 방식으로 지원해 노동 수요 창출
- 주거 시설과 교통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마련과 경제 성장 제약 완화

④ 미래의 일자리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에 초점

- 교육기관들도 향후 수요가 많은 디지털기술에 집중해야 함
- 민간 및 공공 교육기관들은 재교육을 강화해 인재 이탈이나 실업 방지
-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유연한 사업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결론 |

- 팬데믹으로 발생한 빈부 격차는 해결이 요원해 보이지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발판이 될 수 있음
- 팬데믹과 기술혁신에 대처하는 것은 장기적인 인재 부족, 소비 둔화, 경제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피해가 심한 근로자 계층의 지원에 집중해야 함





2.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빈부 격차 해소 정책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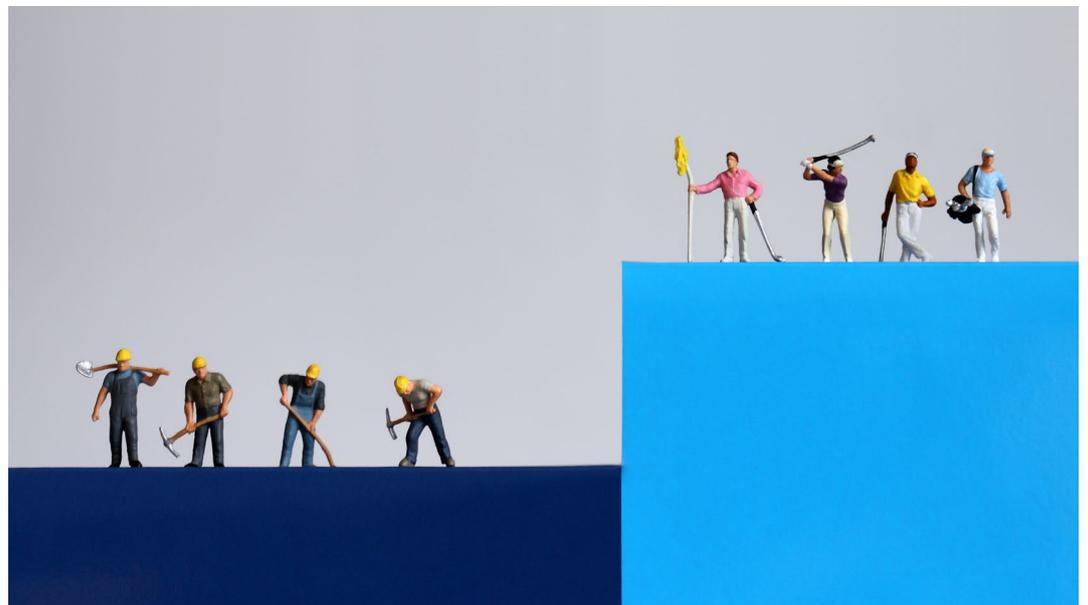
 [How to Fix Economic Inequality?](#)

| 현황 |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글로벌화로 인한 무역 자유화로 노동 시장 격변
-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는 늘고 저숙련 노동자는 일자리 잃어
- 미국과 유럽은 기술의 진보와 무역 자유화 수준이 비슷하지만 빈부 격차에서는 차이가 심함
- 세금감면, 복지 등의 정책 시행 이후에도 미국의 지니계수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음
- 교육 기회에서 빈부 격차 발생
- 최저임금 오히려 하락
- 노조 권한 약화
-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 기후변화로 취약계층 소득 급감

| 빈부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이유 |

- 국가경쟁력 저하
- 취약계층의 빈곤 탈출 및 신분 상승 기회 차단
- 빈부 격차는 민주주의에 반함
- 독재자들이 빈부 격차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 얻음





| 정책 제안 |

● 세금

- 세금 공제 및 감면 확대
- 노동에 과세를 줄이고 자본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
- 부자세 신설
- 상속세 유지 및 강화
- R&D에 세제 혜택 제공

● 교육

- 아동 무상 교육 제공
- 육아 지원 확대
- 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 기회 확대
- 재능 발굴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제공

● 노동 정책

- 최저 임금 상향
- 필수 근무 인력 급여 상향
- 기존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감독 강화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정부 투자 확대
- 비정규직 보호
- 실업 급여 제도 신설

● 기업 규제

-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 정책 신설
- 경쟁업체로 이직을 막는 규정 완화
- 노조 및 단체 행동 허용

● 사회안전망

- 의료 보험 접근 확대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수급 조건 완화
-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기존 사회안전망의 확장성 이용
- 최저임금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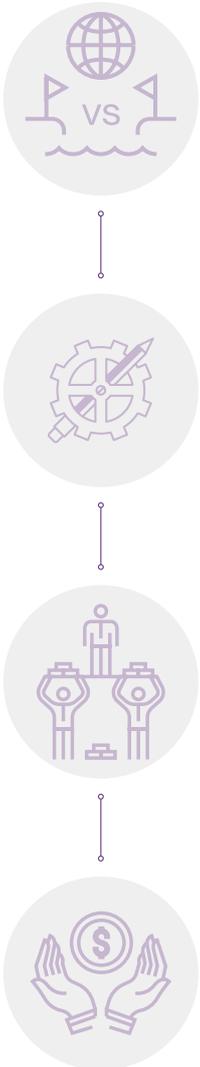
3. 채텀하우스 | Chatham House

세계를 분열시키는 빈부 격차

Ian Goldin

2021. 12.

 Inequality is Polarizing the World



66

코로나19로 빈부 격차 더욱 심화

유럽의 사례와 브라질의 ‘조건부 현금 이전’ 제도 등을 통해 완화 가능성 보여줘
무엇보다 빈부 격차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당면 과제를 인식해야

99

| 빈부 격차의 악영향 |

- 정치적 포퓰리즘과 보호 무역주의 심화
- 정치의 극단화 불러오고, 국수주의 심화시켜 국제협력 훼손
- 주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 저하
- 전 세계적으로 빈곤 증가

| 해결 방안 |

- 빈부 격차 해소를 단지 소득과 경제 성장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됨
- 교육, 의료 서비스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 줄인 유럽의 정책 참고
- 빈부 격차 해소 가능성 보여준 브라질의 ‘조건부 현금 이전’ 제도 등을 연구해 적용 가능한 제도 마련

보우사 패밀리아

브라질이 국가 정책으로 실시한 가족 지원 제도로서, 빈곤층과 기아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복지 정책인 ‘포미 제루’(Fome Zero, 기아 제로)의 중심이다. 이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습과 건강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현금 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제도로, 대대로 이어지는 가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로 창설했다. 브라질의 빈곤을 반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칠레와 방글라데시 등지의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을 줄이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 결론 |

- 빈부 격차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
- 빈부 격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내 및 세계 정치의 극단화로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의 심각성 인지



4. 브루킹스연구소 | Brookings

코로나19로 드러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John R. Allen, Darrell M. West

2020. 11.

 [How to Address Inequality Ex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 현황 |

- ①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원격의료, 화상회의, 전자상거래 증가했지만 기술 접근성과 사용 측면에서 불평등 드러나
- ② 광대역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접근성 등에 대한 불평등 발생으로 취약계층의 소외가 심화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 해결 방안 |

- 디지털 인프라 건설과 디지털 접근성 개선에 투자해 인종, 소득, 지리적 조건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해소
- 디지털 격차 해소를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해 소외 지역에 인프라 투자 집중
-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분야 투자 유도 필요
- 인터넷 접근성은 전 국민 의료보험처럼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는 시각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포용 경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 결론 |

- ① 코로나19로 발생한 근본적인 디지털 변화는 백신 개발 이후에도 가속화될 것
- ② 디지털 격차는 인종 차별, 사회 갈등, 경제적 박탈, 정치 분열 불러
- ③ 디지털 격차 해소를 기술적 문제가 아닌 리더십의 문제로 보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함